10면에서 계속

21년(기원전 446년) 증자 60세, 동문 자하가 아들을 잃고 실명하자 위나라 서하西河로 가서 자하(기원전 507년생)를 위문하고 그곳에서 잠시 강학한다. 61세에 남무성으로 돌아와 이후 70세까지 계속 강학하며 제자를 가르친다. 70세 이후에는 강학하며 제자들과 언론言論을 정리하였다. 노나라 도공 35년(기원전 432년)에 증자는 74세로 졸하였으며 남무성에 장사하였다.

증자의 전기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살펴보면, 서한西漢의 사마천司馬遷(기원전 145~기원전 80)이 지은 《사기史記》<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 삼국시대 위魏나라 왕숙王肅(195~256)이 지은 《공자가어孔子家語》<칠십이제자해七十二弟子解>, 서진西晉의 황보밀皇甫謐(215~282)이 지은 《고사전高士傳》, 북송北宋의 소철蘇轍(1039~1112)이 지은 《고사古史》<공자제자열전孔子弟子列傳>, 명明나라 설응기薛應旂(1535년 진사)가 지은 《사서인물고四書人物考》<권卷16 전傳13>, 명나라 공승업孔承業이 지은 《궐리지闕里志》<권13>, 명나라 우신행于愼行이 지은 《연주부지兗州府志》<권7>, 명나라 여원선呂元善이 지은 《성문지聖門志》<권1중中>, 청淸나라 웅사리熊賜履가 지은 《학통學統》<정통正統>, 청나라 장백행張伯行이 지은 《도통록道統錄》, 청나라 이개李鎧가 지은 《상사尙史》<공자제자전孔子弟子傳>, 청나라 정효여鄭曉如가 지은 《궐리술문闕里述聞》<권4> 등은 《증자고》에서 현존하고 있다 하고,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 나오는 《증삼전曾參傳》은 작자와 저작연대가 자세하지 않고 망일亡佚되었다 한다.

증자의 연보 및 연표와 관련된 주요 자료는 명나라 이천식李天植이 지은 《증지曾志》(증자생졸년 기원전 505~기원전 433), 명나라 여원선이 찬집한 《성문지聖門志》(증자생년 기원전 505년), 명나라 포대관包大↙이 편찬한 《성문통고聖門通考》(생년 기원전 505년, 졸년 70세 이상), 《중국역대인물년보고록中國歷代人物年譜考錄》에 의거 청나라 장용臧庸이 지은 《칠십자표七十子表》, 청나라 임청부林淸溥가 지은 《공문사제연표孔門師弟年表》(생년 기원전 507년), 청나라 풍운원馮雲鵬이 찬집한 《증자서曾子書》(생졸년 기원전 505~기원전 432), 청나라 여병余丙(하남성 河南省 우주禹州 사람, 자 경첩敬捷)이 지은 《여씨학궁집략余氏學宮輯略》<종성증삼연보宗聖曾參年譜>(생졸년 기원전 505~기원전 436), 청나라 호택순胡澤順이 지은 《공안증맹생졸연월표孔顔曾孟生卒年月表》, 장백잠蔣伯潛(1892~1956) 지은 《증자연표曾子年表》(증자생년 기원전 505년), 전목錢穆(1895~1990) 지은 《선진제자계년통표先秦諸子系年通表》(생졸년 기원전 505~기원전 436) 등이 있다.

증자의 이름으로 된 저술은 《증자曾子》와 《효경孝經》그리고 《대학大學》등 3종이다. 《증자》는 증자의 저작이라고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에 산일散佚되었고, 한漢나라 때 학자 대덕戴德이 지은 《대대례기大戴禮記》 49편에서 58편까지의 내용이 《증자》 18편과는 어떤 관계인지 논란이 되고 있고, 《효경》의 지은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대여섯 가지 견해가 있으며, 《대학》은 증자의 저작이라 하지만 오히려 자사子思가 지었거나 한대漢代 유생儒生의 소작이라는 등의 중설衆說이 분분하다. 책이 완성된 시기를 보는 시각도 동일하지 않다. 증자의 언론은 분산되어 선진先秦과 양한兩漢 시대 저작 가운데서도 보이며, 증자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남송南宋 이후부터 시작하여 증자의 저작과 언행에 관련된 집록輯錄과 저서가 출현하였으며, 명청明淸 양대兩代로부터 근대 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방면의 여러 집록이 있다.

《증자》는 대개 《증자》 18편과 《증자》 10편을 이루고 있으며, 증자의 언론이 담긴 서적을 모아보면 《논어》, 《맹자》, 《장자莊子》, 《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 《예기禮記》, 《한시외전韓詩外傳》, 《설원說苑》, 《시자尸子》, 《백호통白虎通》, 《중론中論》, 《공총자孔叢子》, 《박물지博物志》, 《금루자金樓子》등이다. 《효경》 1권은 중국 사상사에서 홀대가 용납되지 않는 지위에 올라 있다. 특히 한나라 문제文帝가 옹립된 뒤 설치된 효경박사孝經博士와 한대漢代의 통치자들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을 선전한 이후 오랜 봉건사회 제도에서 사람들이 수신을 완성하는 필수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효경》의 작자와 관련해서는 도리어 중설이 분분한데 대략 여섯 가지 설이 있다. 공자가 지었다는 설, 증삼이 지었다는 설, 공자와 증삼이 합동으로 지었다는 설, 공자의 70제자가 지었다는 설, 증삼의 문인이 지었다는 설, 한유漢儒가 가탁假託했다는 설이다. 《효경》의 역대 주소注疏 서목書目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한서》<예문지>, 《수서》<경적지>, 《구당서舊唐書》<경적지>, 《신당서新唐書》<예문지>, 《송사宋史》<예문지>, 《보원사補元史예문지》, 《보요금원사補遼金元史예문지》, 《보삼사補三史예문지》, 《명사明史》<예문지>, 《청사고淸史稿》<예문지>, 《사고전서존목四庫全書存目》등이고 책 제목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

《대학》은 《예기》 가운데 1편으로 송대 이후 《사서》의 첫머리에 올렸으며, 처음 배울 때 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였다. 그 개론은 유가사상의 이론과 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가와 관련된 주인做人, 입신立身, 치국治國 및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 등의 방면에 대한 종지宗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을 지은이는 수당隋唐 시대 이전에는 언급한 사람이 없고 송대에 이르러 비로소 다른 논조가 등장하였다. 북송의 정호程顥와 정이程 형제는 《대학》이 공자의 저작이라 하였고, 남송의 주희朱熹는 공자와 증자의 합작이라 하였다. 송대의 왕탁汪晫(1162~1227)이 지은 《증자전서曾子全書》와 청나라 때 왕정안王定安(1833~1898)이 지은 《증자가어曾子家語》에 《대학》이 편집되어 있는데 이는 주희의 설에 의거한 것이다. 증점과 증삼의 저작설은 남송의 여립무黎立武(1268년 진사)가 지은 《대학본지大學本旨》에서 경經과 전傳을 구분하지 않고, 주희가 이른바 경經 부분은 증점이 말한 것이고 그 밖은 증삼이 해석한 것이라 인식을 같이 하였다. 《대학발미大學發微》 가운데서 여립무는 증삼이 '도를 전하는 것은 일관一貫하는 데 달려 있고, 도를 깨닫는 것은 충서忠恕에 달려 있으며, 도를 만드는 것은 《역易》의 《간艮》괘에 달려 있다' 한 것으로 공언하였다. 자사의 저작설은 명나라 숭정崇禎 연간에 국자감 좨주를 맡았던 담정묵譚貞默(1590~1665)이 지은 《삼경견성편三經見聖編》의 서문 가운데 《육경六經》(《역易》 《시詩》《서書》《예禮》《악樂》《춘추春秋》)은 모두 공자가 지은 경전이고 그 중에 《논어》가 가장 유명하며, 자사의 저서가 현재의 《중용》과 《대학》을 지었다고 하는데 실은 《중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학》은 《중용》의 뒷부분의 절반이라 하였고, 그래서 평소에 말하는 《사서四書》가 실제로는 《삼서三書》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을 자사가 지었다는 견해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를 인용한 내용이 송대宋代에도 있고, 명대明代의 저명한 위서僞書 전문가 풍방豊坊(1494~1569)이 증거를 제시한 것도 있다. 한대漢代 박사博士의 저작설은, 유정섭兪正燮(1775~1840)이 《계사류고癸巳類稿》에서 《대학》은 본래 한나라 때 《시》《서》박사들의 잡집雜集이라 했는데 장백잠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그 근거로 《대학》의 내용과 문풍文風은 공자, 증자 또는 자사의 작품이 아니고 마땅히 한나라 무제武帝가 상서庠序를 설립하여 학교를 일으킨 이후에 출판된 것이라 단정하였다. 장씨가 지적한 것은 예를 들어 주희가 말한 《대학》이 증자가 저술했거나 증자의 문인이 기록했거나 혹은 자사의 저작설이라면 《대학》은 마땅히 전국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나 《논어》 이후 전국시대 제자諸子들의 문체 변천과 《대학》과 《논어》, 《맹자》, 《중용》등을 비교해보면 《대학》은 뒤에 나온 작품에 속함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학》의 역대 주소注疏 서목書目을 보면, 《송사》<예문지>에 11종, 《보원사예문지》에 31종, 《명사》<예문지>에 19종, 《청사고》<예문지> 21종이 있다.

증자는 공자의 학생 가운데 지위가 있었으나 증자 사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식을 받지 못했다. 위로는 공자의 도통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사맹학파思孟學派를 열어주었지만 이러한 일개 학술적 지위가 당송唐宋 이후에야 비로소 여러 사람의 승인을 조금씩 받게 되었다. 역대 증삼의 봉증封贈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당唐나라 고종高宗(이치李治) 총장總章 원년(668) 4월에 증자는 태자소보太子少保를 추증追贈 받았는데 이는 증관贈官의 시작이고, 태극太極 원년(712)에 예종睿宗(이단李旦)이 태자태보太子太保를 가증加贈하고 공자의 묘당에 배향했는데 이는 배향의 시작이다. 개원開元 8년(720) 현종玄宗(이융기李隆基)이 증자의 위차位次를 정할 때 조칙하여 이르기를 '증자의 지극한 효도는 덕행으로 보자면 같은 반열에서 가장 으뜸이니 특별히 소상塑像(토우土偶)을 만들어 10철十哲(공자 문하에서 가장 우수한 10위의 제자, 즉 안자연顔子淵, 민자건閔子騫, 염백우 伯牛, 염중궁 仲弓, 재자아宰子我, 단목자공端木子貢, 염자유 子有, 중자로仲子路, 언자유言子游, 복자하卜子夏를 말함) 다음 자리에 앉히도록 하라' 하였다. 증자는 개원 27년(739) 현종玄宗에게서 성백습伯을 추증받았고 이때 아버지 증점은 숙백宿伯을 추증받았으며, 이는 증작贈爵의 시작이다. 또한 이때 공자는 문선왕文宣王의 추봉 시호를 받았으며, 십철은 안자연증연국공顔子淵贈兗國公, 민자건증비후閔子騫贈費侯, 염백우증운후 伯牛贈鄆侯, 염중궁증설후 仲弓贈薛侯, 재자아증제후宰子我贈齊侯, 단목자공증려후端木子貢贈黎侯, 염자유증서후 子有贈徐侯, 중자로증위후仲子路贈衛侯, 언자유증오후言子游贈吳侯, 복자하증위후卜子夏贈魏侯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왕공후백王公侯伯의 서열을 볼 수 있고, 이때 증자의 명칭은 증삼증성백曾參贈宗伯으로 73위의 백伯 가운데 으뜸 자리에 올렸다.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2년(1009) 5월에 하구후瑕丘侯에 추봉되고, 휘종徽宗 정화政和 원년(1111) 6월에 태상시太常寺가 '공자의 훌륭한 제자에게 후작侯爵을 봉한바 선성先聖의 이름과 동일한 것은 존사尊師의 예를 잃었다'고 아뢰어 조칙으로 무성후武城侯라 고쳤다. 정화 3년에는 안자顔子를 공자 뒤에 배配하고 증자를 10철哲의 반열에 올렸다. 도종度宗 함순咸淳 3년(1267)에는 성국공습國公의 가봉을 입었고, 원나라 문종文宗 지순至順 원년(1330)에는 성국종성공습國宗聖公의 가봉을 입었다. 이때 안자연국복성공顔子兗國復聖公, 자사기국술성공子思沂國述聖公, 맹자추국아성공孟子鄒國亞聖公, 하남백정호예국공河南伯程顥豫國公, 이양백정이낙국공伊陽伯程洛國公도 함께 가봉을 받았다. 명나라 세종世宗 가정嘉靖 9년(1530)에는 종성증자宗聖曾子의 칭호를 얻었다.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 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 응용편
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야학노인野鶴老人 저著
이문휘李文煇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11-9598-0852 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89-6
전화 051)247-9106 팩스 051-248-2176
값 기초편 10,000· 응용편 15,000원